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1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향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말레이시아 정부, Penang port 소유권 이전 가능성 시사 -----	2
□ 인도, Vizhinjam항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	3
□ DP World, 인도 Vallarpadam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내년 1월로 연기-----	4
□ APM T, 브라질 신규항만개발사업 경쟁입찰 참가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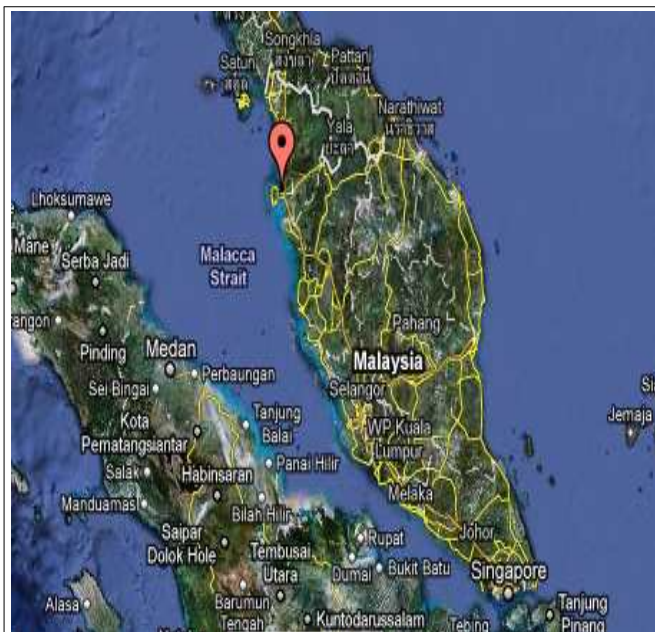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 Penang port 소유권 이전 가능성 시사

- 말레이시아 정부는 Penang항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민영화는 입찰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 구체적인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거대 항만 운영사인 MMC Corporation, PTP(Port of Tanjung Pelepas) 및 Johor 항만 운영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페낭항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포트 중 하나로 1994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컨테이너, 벌크, 페리 등을 취급하고 있음
 - 처리 물동량은 2008년 930천TEU, 2009년 958천TEU였음
- 페낭항 인프라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4.46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순수익은 약 6.45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에 민영화를 실시하여, 1986년 Port Klang항 컨테이너 부두를 민영화하였고, 1993년에는 벌크부두도 민영화하였음
 - 1994년에는 Klang West Port를 민영화하였으며, 1995년에는 조호르항만당국이 Tanjung Pelepas항을 PTP(Port of Tanjung Pelepas)사에 민영화하였음

<Penang항 위치>



<Penang항 현황>



자료 : Cargonewsasia 2010. 11. 22/ Penang항 홈페이지(<http://www.penangport.com.my>)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인도, Vizhinjam항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

- 인도 남서안 Kerla 주의 위치하고 있는 Vizhinjam항에 연간 410만 TEU 처리능력을 갖춘 대형 국제 환적 컨테이너터미널 항만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본 프로젝트는 기존 2009년에 사업자로 선정된 Lanci Infratech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 이후 Kerla 주정부의 노력과 인도 은행들의 노력으로 프로젝트가 제기되었음
- Kerala 주는 SBT(State Bank of India)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제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승인함
 - 본 컨소시엄은 Dhanlaxmi Bank, South Indian Bank, Federal Bank 그리고 State Bank of India 등으로 구성됨
 - Vizhinjam항 프로젝트를 위해 컨소시엄에서 552.9 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도 정부에서는 55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 항만 사업(운영)자는 2011년 1월 쯤에 선정될 예정이며, Vizhinjam항 개발은 2011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임

<Vizhinjam항 위치>



<Vizhinjam항 현황>



자료 : Dredgingtoday 2010. 11. 24, Vizhinjam항 홈페이지 (www.vizhinjamport.co.in)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DP World, 인도 Vallarpadam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내년 1월로 연기

- DP World는 인도 Cochin항의 Vallarpadam에 ICTT(International Container Transshipment Terminal) 공사 1단계를 2007년부터 추진해왔음
 - ICTT 1단계는 선석길이 600m, 수심 14.5m에 이르는 규모이며, 당초 2010년에 개장 예정이었음
 - ICTT는 인도 서남부의 케랄라(Kerala) 주와 타밀나두(Tamilnadu) 주,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일부가 배후지에 해당하여 이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화물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음
 - 또한 DP World는 ICTT 운영을 통해 인도서남부 지역 화물 뿐만 아니라 극동-유럽 노선의 환적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59호 참조

- Cochin항의 항만관리청인 Cochin Port Trust의 항만준설작업이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ICTT의 개장은 내년 1월로 연기되었음
 - 한편 크레인 설치 및 여타 공사 등에 대한 DP World의 개장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ICTT 개발 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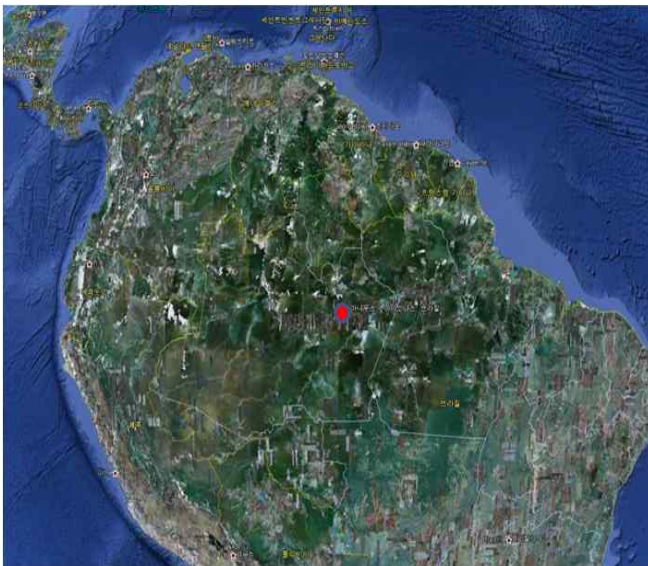
자료 : CI-Online, 2010.11.29. / <http://www.igtpl.com>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 APM T, 브라질 신규항만개발사업 경쟁입찰 참가

- AP Moller Terminal사는 브라질 아마존강 내륙에 새롭게 개발되는 Port Novo de Manaus항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에 참여
 - 다른 입찰자는 브라질 Santos항과 Rio de Janeiro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Grupo Libra사와 성격이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계 컨소시움 등이 있음
 - 개발사업자는 4~7주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임
- Manaus항의 개발비용은 1.8억~2억 달러 규모로서, AP Moller Terminal사가 제안한 사업규모는 2단계에 걸쳐 진행
 - 1단계 건설 규모는 안벽길이 500m에 연간처리능력 50만TEU로서 2012년 말에 개장 계획이며,
 - 2단계 건설 규모는 개장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벽길이 200m가 추가될 계획임

<Manaus 항 위치>



<Manaus 항 개발예정지역>



자료 : CI-Online, 2010.11.22.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